

# 소문난 책벌레 이 책은 꼬~옥



**책과 더불어 배우며 살아가다**  
이권우 지음 | 해오 펴냄 | 9500원

가을은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1년 365일 단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눈앞에 가시가 돋힌다는 이가 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취미와 특기, 직업은 모두 독서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또 그는 각종 지면과 방송 매체를 통해 좋은 책을 소개하는 일도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한다. 그가 바로 <출판저널>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소문난 책벌레이자 도서평론가인 이권우씨다.

이씨는 책 읽기야말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에 그가 내놓은 이 책은 책벌레로 이름난 그가 그동안 읽은 책들 중 감동하거나 아니면 흥분해서 “도저히 혼자 알고만 있을 수 없어 주변사람들에게 함께 읽어보자고 말했던 책들”에 관한 이야기를 묶었다. 모두 48편의 이야기에 55권의 책이 담겼다. 문학, 사회학, 고전과 판타지, 예술, 만화 등 장르는 물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책들이 그를 통해 다시 재탄생한 셈이다.

이 책이 읽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책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도 내공이 센 그가 권하는 책이라는 신뢰도 때문이다. 아마도 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책들 중 이만한 선구안이 또 있을까 싶다. 혹시나 이미 읽은 책이 있다면 지은이의 책읽기와 비교·분석하며 내용 대결을 벌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그리고 책과 더불어 배우며 살아가는 지은이처럼 이 책을 통해 책읽기의 재미를 느끼고, 배우는 즐거움도 또다른 이유중 하나다.

### 책 읽기 하나-책과 더불어 삶을 배운다

이권우씨는 지은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은 가르침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때론 구도자의 자세로 책읽기에 임한다. 김병익의 <글 뒤에 숨은 글>, 배병삼의 <한글체대가 본 논어>를 읽은 그는 논어와 김병익의 ‘그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을 통해 반성과 성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투션의 <희망은 길이다>를 읽고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운명론자가 되느냐, 어쩔 수 없지, 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더 나은 삶”임을 깨닫고 모두가 ‘무선스러운’ 운명론자가 되기를 주문한다. 줄리아 크리스티나와 카르린의 <성공 성스러운>을 통해서는 “‘눈부심보다 밝음이 낫다’는 문구를 가슴에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라며 눈을 멀게 하는 광휘보다는 사물의 윤곽을 드러내는 빛이 더 나은 것임을 깨닫는다. 마치 오래된 스승과 대화하듯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으면서 책읽기를 통해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

### 책 읽기 둘-더불어 사는 세상 만드는 첫걸음

지은이는 책읽기가 개인적인 성찰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셀 콘래드의 <압록의 핵심>을 통해 그는, “제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겉으로는 식민국가의 제정과 발전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더 많은 이익을 노린 탐욕 때문에 제국끼리의 전쟁으로 치달았다”라고 말한다.

프랑스 판 데어 호프의 <희망을 거래한다>에서는 “기난은 원조나 시혜로 해결되지 않는다. 원조는 경제중속을 부른다. 하나의 상품에 담긴 인명성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속에 녹아 있는 노동자들의 땀을 본다면, 기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보인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우월감이 아닌 일애에 빠지는 것이 아닌, 진정한 땀의 가치를 매긴다면 서로 공평하게 잘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이권우씨는 해석한다. 이렇듯 그에게 있어 책읽기는 이웃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 책읽기 셋-가슴 벅찬 감동의 울림

이 책은 각종 영상매체에 빠져 책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읽기야말로 그 어떤 영상매체보다 재미있고, 감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상매체는 상상을 실현할 것이지만, 책은 읽는이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만화방을 성소로 여기며 지낸 어린 시절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로 기억하며 만화가 박흥용과 <만화로 읽는 사기>의 감동을 전한다. 만화뿐만 아니라 소설, 판타지, 예술인들의 전기, 각 분야 전문가의 글들은 삶의 열정을 북돋우기에 충분하다.

오승은의 <서유기>를 읽은 그는 “이 소설의 참된 가치는 환상과 상상, 그리고 풍자와 해학을 통해 타락한 현실세계를 비웃고, 인간의 욕망을 깊이 있게 살피는 데 있다고 역설한다. 박영택의 <예술가로 산다는 것>을 읽고는, “스스로를 저주받은 예술가로 만든 이들, 그러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마치 구도자처럼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 자기를 스스로 유배시키는 이들의 치열한 예술혼에 그저 가슴 뜨거워질 뿐이다”라며 감사를 전한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책이 모두 양서이고 자신에게 맞는 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책 많이 읽는 자의 무거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한 권 한 권의 책을 읽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이권우의 책읽기는 그래서 책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이씨는 “책을 찾으면, 나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얼른 읽지 않는다. 밑줄 친 부분만 훑어보면서 그들의 가슴에 웅숭웃혔던 감동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을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내가 바로 책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자신의 독서법을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드 니버 지음 | 이현우 옮김  
문예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지은이는 이 책에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구분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과 집단의 서로 다른 도덕적 특성에서 연유한다. 개인들은 교유이나 설득을 통해 합리적 행동을 유도하기가 쉬운 반면 집단은 구성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설득을 이끌어내기가 개인에 비해 훨씬 어렵다. 여기에서 집단은 개인을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를 지칭한다. 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집단 전체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선의지를 지닌 인간을 집단적 이익으로 결집시켜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전제를 수용한다면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도덕성에만 호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 양심이나 선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개인의 도덕적 양심이나 선의지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결국 사회문제는 사회 구조나 체제의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개인들의 합리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

###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조건

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회문제의 해결을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에 맡기기 보다는 올바른 사회 구조의 정착이나 합리적 정책 판단과 실천을 통해 오히려 개인들이 자신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할 때 더 유리한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사회 체제가 정비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우리 사회는 난미 현상이 난무하고 있다. 나의 집단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현상은 집단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은 결코 개인의 양심적 판단으로만 해결하기가 힘들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현실적 경제적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도덕적 양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어느 집단이 타 집단과 비교해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희생을 인내하고 사회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사회 시스템의 정착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현대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이익집단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며 배울거리들이 많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일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보라고 감히 권하고 싶다. 다소 지루하고 딱딱한 철학적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인내하고 읽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책이기 때문이다.

■김정환(강원도 정선고등학교 윤리교사)

블서구입은 [www.yosiam.com](http://www.yosiam.com)

##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 EPS발브를 설치하게 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나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EPS발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안전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 (안방은 덥고 할머나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공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전국사찰,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에서 직접 만든...

### 산초조청

- 산초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초조청은 산채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초조청은 비구름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 산초 참외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 산초 청미래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종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 산초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가래,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민간장을 비롯하여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1100g×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신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원순화)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초조청원**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기름 : 전혀 아예본 사용가능

### 원두막 6000×3000×3200[mm]

8000×3000×3200[m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원두막형 방가로 전기 판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 평상 1500×620×350[mm]가:150,000 할인가:120,000

1800×1030×350[mm]가:180,000 할인가:150,000

특수 제작한 폴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어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온 조립이 간단하여 얼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경사실용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www.bungato.com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권영호

전화주문 시 무료배송 [건물목부기세발도] 지역대리점 보유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 불 전 함

음식이거나 텃밭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